

농촌의 여가문화와 신앙생활¹⁾

이 정 구(교수, 성공회대학교)

1.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서울시내 티브이 전광판에 비치는 로또 복권 선전이 온 국민의 마음을 사행심으로 몰들게 하고 있다. 얼마나 근사한가! 단 이천 원으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은 도시민 농어민을 막론하고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읽지 못하는 둔한 사람으로 치부될 뿐이다.

수 년 전 영국에서 로또 열풍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홀연히 성공회(국교)주교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버리라는 충고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곧 복권회사에서 복권 수익금으로 고색 창연한 교회를 보수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주교는 복권에 관한 그 어떤 성명서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1) 이 글은 신학사상 2002년 가을호에 발표했던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복권당첨은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든 바꾸어 준다. 돈이 갖는 위력과 돈을 벌기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 복권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며 구세주로 자리잡고 있다. 아흔이 넘은 사라가 임신할 확률보다 더 희박한 복권 당첨에 내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혹은 심심풀이로 구입한다. 한 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며 지하철이 불에 타 말 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연이어 전개되는 것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또 다른 부끄러운 모습이다.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국제정치상황 속에서 남북의 전쟁문제 등, 이러한 삶의 불안한 자리 때문에 로또 복권이 더욱 흥행하는지도 모른다.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 속에서 여유와 여가를 갖는다는 것은 사치이기 이전에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문화를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힘들다.

2. 농부의 여가

경제나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울수록 여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과 엉뚱한 상상력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식으로 근면한 국민은 소위 잡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에 열중한다고 하는 말은 기업주들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한 그럴듯한 표어일 뿐이다. 오늘의 농부들은 과거 농한기가 있던 시대의 농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농한기에도 특수 농산물 재배와 기타 다른 부업을 하지 않으면 가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농부들에게 있어서의 여가란 무엇일까. 21세기에서 농부들에게 여가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여가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공간의 여유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며, 이로써 기업들은 그만큼 생산을 하지 못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노동자들은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잇달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그것에 대한 평가가 보도된 바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기업들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성취욕도 높아졌다는 것이다.²⁾ 대중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는 주5일제를 말하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복지, 혹은 문화적인 대책은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이란 거의 전무했으며, 어렵게 얻은 여가라도 대부분 집안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고스톱을 하거나 낚잡으로 소일하고, 건강한 노동자는 집수리하고 가족과 친지방문하거나 영화관 가고 외식하는 정도였다. 과거 농한기에 근면하지 못한 농부는 음주와 놀음으로 빚을 지고 마을을 떠나야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수의 농민들은 농약을 즐기고 품앗이를 하며 가마니를 짜고 마실을 다니며 공동체의 정을 돈독히 했다.

여가문화는 고령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사회복지 및 문화와 교육정책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문화연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장시간 노동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야 함은 물론, 이와 함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시공간의 재조직과 문화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여가시간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세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등, 도시공간의 재조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오늘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적 표현 능력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광장, 그리고 자유시간이라는 것이다.³⁾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자본이나 억압의 구조밖에 있는

2) 2002년 7월 28일 KBS TV 저녁 뉴스

3) 「문화연대」 제 30호, 2002년 8월 1일, 1면.

지역과 사람들의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⁴⁾

특히 일과 놀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과거 농부의 일상이 농기구의 기계화와 농촌의 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처럼 변화하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안주하지 않는 농촌이지만 보존해야 할 고유한 농촌의 문화, 문화의 농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만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농촌교회의 현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있는 제 칠일 안식교단을 포함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5일 근무를 크게 환영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주말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신자들의 교회 출석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연휴제로 인한 교인 감소현상은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개별적인 부정적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제도가 만들어내는 문제이다. 주5일 근무제는 시민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인 이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게 할 것이며, 이것에 따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양태와 교회문화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의 세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회는 주5일 근무제가 교회에 대한 도전이며, 시험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교회는 심각하게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농기구의 활용으로 인하여 과거 품앗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술과 화투, 잡담으로 이웃과 함께 여가를 소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

4) 같은 신문, “포스트 월드컵 문화운동을 철회한다” 재 반론, 제 20면.

투놀이는 대체로 심심풀이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몇몇의 젊은 층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역시 텔레비전이 주된 문화매개체이며 텔레비전 시청은 농촌을 도시화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사람들처럼 대개 자가용이 있어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쇼핑도 마을 근처 소도시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가난한 농민은 농한기에는 부업거리를 찾거나 인근 소도시 공장에 가서 품을 판다. 더 큰 문제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도시인들이 시골에 몰리고 이에 따라 농촌 풍광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 풍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모양의 모텔과 음식점이 들어서고 환경을 파괴한다.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시골에 특히 이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농촌에 축조되고 있는 음식점과 모텔도 대부분 도시인들의 소유이며 농부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교회는 시간이 있는 교인들이 주중에 모여 함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며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농촌교회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새로운 선교적, 예배적, 교육적인 대안을 세워야만 한다.

4. 교회의 현실적 기능

1) 다기능공간 교회

과거의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친교를 나누는 종교적인 예배와 영적 기능만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다. 오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음악당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시각 작품으로써 제단화와 성인 조각물,

그리고 그들의 유품들이 안치되어 있는 상설 전시관이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색 유리창)의 조명은 그 전시장의 신비감을 더해 주기도 했다. 한편 교회성가대, 혹은 소년합창단의 그레고리안 찬트와 오르가니스트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교회는 당대의 영적, 지적, 문화적 기능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루브르 궁전의 축조와 함께 1793년 개관한 루브르 미술관이 교회의 과거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학교,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이 각각 독립적으로 여가문화를 창출하며 동시에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늘의 교회는 과거의 문화 종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이후 몇몇 지역교회들은 지역사회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건축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 서라도 농촌교회는 교회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2) 직업의 다양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21세기에는 급부상한 컴퓨터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직종이 탄생했다.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을 하는 일반적인 직장생활 방식 외에 재택(在宅)근무, 프리랜서와 같은 직종이 급증하고 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특수직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성별 구성원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는 60%부터 높게는 90%를 넘는다. 최근 여성의 두드러진 사회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연휴제는 여성들의 일요일 교회출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신자들의 교회 출석율이 저조해질 경우, 극단적으로 교회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유럽교회와도 같이 급속히 노년층의 교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교인 출석율의 감소로 인하여 출판사, 슈퍼마켓 회사가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딕식 교회건물을 산악등반 훈련장소로 대여하고 있다.⁵⁾ 교인출석자의 감소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교회들의 현상은 단순히 유럽이라는 국지적인 지역현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과거 중세기 유럽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시공간을 교회 혹은 학교 밖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다변화되고 다양한 고도의 과학 기술정보시대에서 살고있는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능력이 없으며, 현대인 역시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교회 밖에서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교회 출석율 감소 현상은 기독교 선진국들의 일반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식민지 치하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아프리카, 그리고 저개발국가나 제3세계의 기독교는 오히려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나라들도 국민소득이 일만 불 이상이 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가 일어나면 교회의 '최후의 심판' 이데올로기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시험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 농촌교회의 구성원은 높게는 80%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인이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의 공백은

5) Victoria Woodhall (ed.), "The Preaching and the Converted", *Hotline*, London, John Brown Contact Publishing, Autumn/Winter 1998, pp. 14-17.

농촌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올 것이며, 농한기에도 공장으로, 막노동 건설현장으로 전전하는 농촌의 여성들을 감싸안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농촌교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체제아래에서 오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지속되는 한 농촌교회는 지속적인 농민들의 탈농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문화충돌과 지체 현상

교회가 오늘날까지 신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지금의 즐거움 그 자체만을 즐기거나 중시하게 되었고 사후의 삶을 포함한 미래의 삶은 생각밖에 존재하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여가란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이 아니라 소비활동이며, 그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는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로써의 '최후의 심판'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가문화와 교회문화를 접목시키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현실사회에서 피상적인 존재로써 성스러운 존재교양을 위해 사람들의 세속적인 일상적 삶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상을 직접 간섭하거나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라는 두 갈림길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디오(audio)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기대에 주일이 즐거웠을 수도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현대교회는 당시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기쁨은 주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남겨 놓았는지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국가 이미지를 가슴에 새겨주는 것은 '국민의례'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월

드컵 대회 때의 '붉은 악마'와 같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상징(표상, 재현)을 통해서 일 것이다.

대중문화는 항상 지나치게 대중적인 것이 문제일텐데, 예배는 시끄러운 것보다는 오히려 형식만이 남아있는 지루한 예배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대중문화와 교회문화의 접목에 따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문화취향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형성된 집단과는 달리 그 문화취향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양적으로 퍼져 있는 개념이다. 또 대중은 지나치게 열려있기 때문에 집단화하기 어렵지만, 대중이 군집했던 '붉은 악마'의 경우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모임은 일정 목적이 소멸 되면 그 모임도 흩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대중이 출입하는 동시에 신앙적 특수집단이 출입하는 곳이다. 시민이며 대중이며 동시에 신자라는 특수집단의 일원으로 구성된 교회는 '붉은 악마'와 같은, 혹은 예수 공생애 시절 그를 따르던 대중 같은 그러한 대중적 모임을 한 순간에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유럽의 중세기는 정치 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적(異蹟)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단지 특이한 이단종교 집단이나 기복적 성향이 짙은 몇몇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과학 시대에서도 '최후의 심판' 이데올로기를 심분 발휘하여 대중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산업기술과학 시대의 대중에게 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계는 대중적인 붉은 악마의 투혼을 간단 없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고심하고 있는데, 교회도 '최후의 심판' 날에 지옥 길을 면하게 하기 위한 대중모임을 기술과학 시대와 무관하게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연휴의 여파는 이러한 대중을 교회로 모으기보다는 흩트릴 것이 분명하다.

기술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 하부구조의 변화와 정신문화의 영역

과 같은 상부구조의 변화 사이에는, 비록 양자간의 속도상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깊어 연관되어 있다. 언제나 지적되는 문제는 '질'의 하락 문제와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이(轉移)되는 문제일 것이다. 현대교회는 교회건물과 내부시설, 성가대의 창법이나 악기, 음향기구와 설비, 조명, 냉난방 시설 등만 현대화되었을 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부분, 설교와 성찬예식, 그리고 세례식은 어떤 변화도 없이 고전적으로 답습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는 기술과학시대에 살고있는 대중들이 교회에 대하여 갖고있는 진부하며 부정적 인식의 틀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교회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신세대의 정서와 언어, 양식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교회가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강권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 주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대체개념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개념은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도나 교회선전 목적을 위해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온갖 현대적 시설과 인원을 동원하는데서 오는 시민들의 거부감이다. 넷째, 과다한 현금강요와 대규모 교회건축물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위화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목회자들의 설교를 포함한 문화적 안목에 대한 질의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도시와 근거리 에 위치한 농촌일수록 문화지체현상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오랜 생활관습과 사고체계는 도시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럴수록 농촌교회는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해답은 가치관 정립과 영성훈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농어촌을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영성을 교회나 여타 종교기관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사이에서, 고전과 현대와의 사이에서,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었던 르네상스 시기처럼 현대교회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목회자 양성 교과프로그램

최근 이단사비문제를 비롯하여 휴거사건,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과 헌금사기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기독교와 이단종교를 잘 구분할 수 없는 대중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각 교단은 목회자 양성 교육과정을 대학원 수준으로 높이면서 목회자들의 학력수준은 급속히 향상하였다. 학력으로 목회적 자질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학력을 자질 척도의 하나로 삼는다면 이것은 고학력 시대에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몇 년을 이수하느냐보다는 어떤 교과과정을 이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학부과정부터 6년 혹은 7년 동안 교단의 법, 교리 공부, 빈칸 메우는 퀴즈풀이식 성경암기공부와 최후의 심판식 설교 웅변 기술 법, 기도원식 방언 기도 법, 모든 타 종교문화를 말살하고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식의 선교사 훈련공부, 면죄부 판매식의 헌금 모으기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는 신학교와 그 출신 목회자가 있다면, 이런 목회자는 연휴제가 되면 전원지역에 기도원식 교회를 마련하지 않고는 체질적으로 못 배겨낼 것이다. 청년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목회자라면 교회 안을 록 카페처럼 꾸미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한 교회가 있으며, 극장을 겸비한 교회도 있다. 문제는 목회자들의 다양한 종교와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텐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최

후의 심판' 이데올로기로 모든 문화를 정죄하고자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세확장에만 열정을 쏟는다면 그 목회자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 오히려 '오만과 편견'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학교의 교과과정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과학기술정보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기관은 그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단의 협력 없이는 어떤 변화나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한국 신학교의 실정이다. 더불어 어떤 교과과정을 어떤 의식을 갖고 공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교육수준이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정도와는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연휴제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활성화하고 교세확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우상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촌 목회자 중에는 자신의 목회 현장을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인턴십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농촌이 점차 사라지고 도시화되어가고 있을지라도 농촌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농촌목회는 다수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도시교회와는 다른 전문 사역이다. 농촌사회가 목회자, 혹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목회자와 교회는 농촌사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교 시절부터 농촌사역자를 발굴하고 농촌목회를 위한 특별 교과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5. 교회의 대응

1) 프로그램 개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산에 있는 절은 좋아할 것이고 도시에 있는 교회는 울상이 될 것이라는 말들을 한다.

교회는 영원히 '최후의 심판' 이데올로기 효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최근 주 5일 근무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것에 관한 교회의 대응이나 프로그램마련에 관한 글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그 중 한 편을 보면 평소 교회에 잘 나오는 교인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주일을 성수할 것이고, 반대로 주 5일 근무제를 해서 교회에 잘 안 나올 사람은 주 6일 근무제 때에도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던 사람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암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보도되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 기술을 혜택 받기까지는 무려 십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처럼, 기술적인 하부구조가 발전해도 이것이 정신적인 상부구조에 까지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문화현상에 다름 아니다.

주 5일 근무제가 교회에 가져올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 중에는, 토요일 야외 행사, 자원봉사, 현장교육, 주말 부흥회, 주말 가족세미나 혹은 부부세미나, 음악회 등 전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마음놓고 할 수 없었던 각종 교회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주일성수의 대안으로는 주일개념 예배를 매일예배 개념으로 전환하며, 휴양지의 건물 안에 예배 실 마련하는 것, 전원교회, 대형교회인 경우에는 수양 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교회는 주 5일 근무제가 위기로 다가올 수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는 대체로 교인 수도 수 백 명 이상이 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중형 혹은 대형 중산층 교회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해도 신자들이 연휴에 세속적인 계획을 피하면서 언제까지 교회 프로그램에만 참석하겠느냐는 의문이다. 무슨 상황에서라도 교회에 나올 사람은 나온다는 주장은 어느 상황에서도 봉사할

동과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단순논리에 따른 연휴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교회가 하고싶은 프로그램을 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보조하여 교회가 함께 춤을 추면 눈에 당장 보이는 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본성을 잃고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세속의 유희를 선호하는 인간도 내면에는 종교적 본성이 있어서 언제나 영성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의 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백화점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살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 취미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시회, 음식 전람회, 패션 쇼를 유치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⁶⁾ 교회도 예배만 보거나 드리는 곳이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인간의 '도덕성과 측은지심'에 깊은 관련이 있는 영성훈련이나 계발과 관계없이, 피안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경외심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최후의 심판'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원교회, 콘도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원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자체를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교회라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미 밝혔다. 중요한 것은 연휴에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인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관심이나 매력을 갖지 않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로 인하여 교회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이 문제다. 교회의 주된 프로그램이 예배, 봉

6) 참고로 서울시내 각 백화점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기상천외한 프로그램 안내를 살펴볼 일이다. *Metro Life*, 2002년 8월 8일 22면.

사, 성서공부, 부흥회, 부부 세미나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회의 기능적인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저 높은 곳만을 향하려는 교회의 교리적이며 정치적인 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교회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연휴의 긴 시간을 매우면서, 동시에 교회의 욕심까지 채우려는 상업적 발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프로그램만을 마련하는 것으로 열거한다면 이외에도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자매결연, 혹은 텃밭교회 일구기, 사랑의 집짓기 운동과 같은 농촌교회 짓기 운동, 부모를 동반한 도시와 농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상호 견학, 체육대회, 등 수없이 만들 수 있다. 특히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할 경우 청소년을 유치할 프로그램은 많을 것이다. 연휴제가 정착되면 무엇보다도 가난하여 소외되는 계층도 그만큼 두텁게 형성된다는 것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된다.⁷⁾

연휴제에 따른 교회의 대응책으로 몇 가지 교회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도시, 농어촌 교회를 넘어서 첫째, 교회라면 생색내기나, 자기들 끼리만의 취미와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촌 일손 돕기, 양로원, 무의탁노인, 결손가정, 외국인 이주 근로자, 소년소녀가장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신자들로부터 훨씬 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몸과 정신을 혹사해야만 하는 봉사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속의 쾌락과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성숙한 시민들은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값있게 소비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기관도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초 중, 고등학생들이 토

7) 성공회 푸드뱅크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 결식 학생 수가 16만 4천 명(2000년 교육부 통계), 결식노인이 약 22만 명(99년 대한노인회 통계), 미 취학 결식아동이 약 15만 명으로 추정된다.

요일에 갈 곳은 사설학원 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무의탁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생태계 보전학습을 하며,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배우고 놀 수 있는 문화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많은 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⁸⁾

셋째,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세계화의 물결, 타종교와의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과제를 놓고 남미의 해방공동체처럼 서로 모여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교인들은 사회의식을 새롭게 하며, 성서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건강한 신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성공간을 세상 속에서 점차 확보해 가는 일이다. 모든 교육, 예술문화분야의 공간이 각기 독립하여 발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종교기관으로써 시민들에게 영성공간을 개방하는 운영을 하여야 한다. 기술문명에 의해 오히려 더 피폐해만 가는 인간의 품성을 닦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침묵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써의 영성공간이 마련된다면 시민들은 즐겨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일반 문화공간의 프로그램에서는 종교나 영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나 발표회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한국 문화계의 실정이다. 시민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음악당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종교화와 종교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역 문화공간 기능도 해야 한다. 동시에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 동안 교회는 신자들만의 닫힌 침묵공간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유명한 베트남 승려 '틱낫한'의 프랑스인 수련생 엘렌 트르셰(Trechet)가 "나는 카톨릭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지만, 인간의 원죄와 참회, 지옥을 강조하는 미사가 너무 폭

8) 엔도 야스히로, 김찬호역,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마을 만들기』, 서울, 황금가지, 1997 참조.

력적이라고 여겼다. 5년 전부터 천국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티베트 불교를 거쳐, 최근에는 소박한 행복을 강조하는 티벳한의 불교에 빠졌다”⁹⁾ 라고 고백하는 말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상가에 세 들어 있는 개척교회라도 시장을 드나드는 지역주민의 쉼터, 탁아 방, 취미교실, 영성공간으로 개방한다면 활성화 될 것이다. 교회의 공간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확대해 가는 것이다.

다섯째, 연휴에는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자리 매김을 했거나 아직 개발 중인 성지를 찾아 순례를 할 수 있다. 성지순례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적인 영혼의 여행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배 순례자, 동행자들과의 연대감과 형제애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성지순례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오는 스페인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성당(Santiago de Compostela) 순례를 들 수 있다. 성당은 성지순례를 마친 사람들에게 순례증명서로써 콤포스텔라를 발행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기타연주가인 세고비아 기타교실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있는 것을 참고할 만하다.

여섯째, 현대사회는 사이버 공간이 점차 인간 정신활동의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신앙 동호인 공동체가 가상공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다.

끝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교회는 자신에 적합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통일성 없이 산만해서는 안되며 일회용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신앙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교인과 교인, 단체와 단체를 이어주고 엮어주

9) ‘조선일보’, 2002년 3월 11면

는 교량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농촌교회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도시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심리적 박탈 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문제, 무질서한 향락산업을 침투에 대해 과감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인들이 부딪혀 오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을 하고 마을마다 캠페인을 벌이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흥지로써 혹은 휴식처로써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인들이 농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농촌교회는 도시인들에게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이중적인 과제가 있는 것이다.

2) 일요일 해체와 예배의 다양성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개념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오래 전부터 '특전미사'라는 독특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토요일에 마련하는 미사이다. 이 장에서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에 관한 논쟁은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일찍이 유대교와 제 칠일 안식교에서 안식일은 성서적으로 토요일이라고 지나치게 펼쳤던 논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전수 받은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법칙은 불문율로 내려오고 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은 것이 태양신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안식일교리가 올바르므로 지금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연휴제가 되면 안식일이 일 주일 중에서 일요일을 전후로 한 토요일이나 월요일이 될지라도 그 영향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람에 따라 일요일을 안식일

로 지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를 하여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요일에 집중되는 신자를 요일에 따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일요일에만 복잡했던 교회 안의 주차문제, 인원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애찬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를 확장하거나 더 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건축헌금 부담문제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열린 교회' 개념으로 교회건물을 여러 사람, 여러 단체가 시차를 두고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예배의 형식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일요일 대예배와 같은 형식과 저녁에만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예배형식이 갈을 수는 없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성찬예배를 비롯하여, 음악예배, 복음서가 예배, 연극예배, 시청각을 동원한 예배, 소수가 동그렇게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 침묵예배 등 다양하면서 즐거운 예배를 마련한다면 신자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영성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신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하여야 한다.

농촌교회는 농번기에는 일요일 예배시간을 아주 이른 아침시간으로, 농한기에는 늦은 시간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하면 좋을 것이다. 주중의 저녁예배는 일터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이 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6. 기취적인 교회건축

최근 서울 근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축조된 대형교회 건축물을 보면 가톨릭,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있다. 먼저 양식적인 부

분에서 차별성을 들 수 있는데 그 차별성은 대체로 'F-15 전투기, 아폴로 우주선, 디즈니 랜드, 러브호텔이나 웨딩 홀'과 같은 특이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양식은 신학적, 영적 성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선호하고 있는 키취적인 정서를 잘 활용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은 로마인들이 누렸던 권위, 중세인들이 우려르던 일체감, 그리고 바로크 인들이 보여주었던 웅장함을 모두 지닌 키취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시각적으로 기쁨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양식의 교회건물이 지속적으로 축조될 리가 없다.¹⁰⁾ 대중들이 이런 건물에 대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매력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최후의 심판'으로 처방을 하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특이한 교회건물이 사람을 낚는 미끼가 되는 셈이다.

이런 교회들의 공통된 또 하나의 특성은 곧 양식은 지극히 세속 지향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단죄하는 양면성을 지닌 교회들이라는 점이다. 특정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향을 짙게 갖고있는 몇 몇의 부유한 교회들이 연휴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프로그램도 공통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직도 목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를 교인 수와, 교회건물의 크기와 교역자 사례비에 두고 있는 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몇 몇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형교회들은 연휴제에 대비하여 영성과 도덕성, 봉사와 나눔의 생명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회를 건축할 입지선정에는 연휴제에 부응할 수 있는 전원교회, 텃밭교회도 한 안이겠지만, 독일 바덴바덴의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관광과 여행자를 위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입지는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농촌에도 이러한 키취적인 대형교회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농촌교회가 재건축을 하는 경우인데

10) 이정구, '교회양식에 대한 감상', 「살림」,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통권 161호, 2002년 6월 호, p. 99.

이것도 도시화의 한 현상이다. 농촌교회일수록 주변환경과 풍광을 고려하고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동시에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인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양식, 농촌문화를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맺는 말

주 5일 근무제, 연휴 제도가 정착되면 일요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빛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어느 나라의 기독교신자보다도 '최후의 심판'에 부합하는 신앙으로 교육받고 훈련된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휴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일요일에 열심히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람직한 교회문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연휴제에 대한 새롭고 건강한 교회문화를 구축해야 할 당위성에 놓여있다. 이것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대중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 더욱 강하게 최후의 심판만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시대를 이끌기는커녕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자명하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기에 이름으로만 보편적이었던 가톨릭 교회가 결국 분열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존재해야 할 필연성을 찾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필연성은 교회의 요구가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문화는 율법을 넘어 인간을 위한 문화로써 새롭게 구축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에게 가장 자극적일 수 있는 주변 풍광의 시각적인 이미지로써의 교회건축을 비롯하여 한국교회는 최근 그 어느 기업보다도 더 이기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교회는 소속된 신자공동체만의 예배와 기도처소를 넘어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로써, 지역사회의 영성과 문화공간으로써 거듭나야 한다. 교회는 주 5일 근무제, 연휴 제의 정착에 따라 신자들의 저조해지는 교회 출석율을 염려하여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 제도로 인하여 더욱 소외되는 민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한다. 이것이 민중의 교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며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다.

농촌교회는 도시인들의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는 이 제도로 인하여 잃고 상처받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농민들은 주말 도시인들의 농촌유입을 막거나 마을에 향락산업이 들어서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농촌을 지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것을 기회로 과거 농촌의 생활풍속이나 관습, 농악 등 농촌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하여 농촌도 지키고 도시인들이 견학하여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농촌교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농촌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고 과거의 농촌문화도 보존하며 도시인들에게 교회를 도시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장, 이러한 프로그램의 열린 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